

산돌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중보기도	11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6

“기다리는 절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대림절기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대로 대표되는 다윗이라는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영광을 다시 가지고 올 왕이었다. 마가복음서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치는 소리에서도 그 기다림의 정체는 분명히 드러난다.

대림절기, 예가교회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가교회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대림절기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절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용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림절은 성탄절 앞의 4개의 주일로 이루어진 절기이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라는 짧은 기도문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탄생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탄생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말의 그리스 표현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 왕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태어난다는 말인가? 여기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나는, 여기에 칸타타 예배에 사용된 짧은 노래 가사로 답을 하고 싶다. “사랑의 빛, 어둔 세상에 오늘 오셔서 임하시도다. 어둔 이 땅에 아들 보내사 사랑의 역사 이루셨네.”

성탄에 태어나는 왕은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태어나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아들이다.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어둔 세상을 밝힐 왕, 사랑의 역사를 이룰 왕을 기다린다. 그 왕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나, 예가교회이다. 이천 년 전에 태어난 왕의 뒤를 이어 나는 오늘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사랑의 역사를 이룰 왕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대림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둔 이 땅에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왕으로서 사는 일이 될 것이다.



■ 오늘 낭독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성전의 회복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땅과 인접한 바다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사독계열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대한 기대도 크고, 사독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는 일과 함께 각 지파 별로 다시 땅을 받게 되는데, 레위지파 보다도 사독의 자손들이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믿음을 저버렸지만, 사독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왕정이 다시 서고, 사독의 자손들이 성전을 지키는 중심에 서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시 땅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에스겔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제공하는 성서일과로 성경낭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에스겔서의 이야기와 마가복음의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어떤 긍정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찾아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될 때에, 그 중심에 레위지파가 아니라 사독의 자손들이 서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이 성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본다면, 그 일의 중심에는 레위지파도, 사독의 자손들도 아닌 새로운 사람들, 곧 교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난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활기있게 될 것이라고, 성전에 대한 전망을 교회에 대한 전망으로 연결시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일, 곧 더러운 영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은, 에스겔서의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병을 고치고, 더러운 영을 내쫓음으로써, 병들고 죽어가는 피조세계에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라고 묻는다면, 에스겔서의 표현을 따라,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일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기의 심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말씀이 교회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심정지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로서 살아있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기의 심장으로 삼고 사는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들을 알아보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생명이니,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으며, 풍성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늬만 교회로 끝날 것입니다. 나는 예가교회가, 그리고 나와 여러분 중 어느 한 사람도 생명없이 죽는 종말을 맞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두고 살 때에만, 교회는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퍼줄 수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장으로 삼고 살려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기도가 아니면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바탕으로 호흡기도도 하고, 주기도의 청원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고 삽니다. 날마다 소원을 빌며, 그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비전으로 상상하며, 소원을 소중



에스겔서	47 : 1 - 12
사도행전	3 : 1 - 10
마가복음서	1 : 29 - 39



히 품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돈과 권력과 매력입니다. 부자로 사는 상상과 소원, 행복이 가득한 집, 그게 뭐냐면, 넓고, 예쁘고 멋진 집, 명품 자동차나 패션, 멋진 배우자와 자식들,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 등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매일 상상하고, 소원합니다.

많은 하인들과 수하를 거느린 권력자가 되는 상상과 소원도 품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자기에게 열광하는 상상과 소원도 품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해주고, 나를 보면 반가워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매력을 소원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화가 쌓입니다. 나를 애를 써본다고, 마음수련 같은 것도 받으면서 정서를 다스려 봅니다. 요가나 운동이나 레저로 스트레스도 풀어봅니다. 상상과 소원의 사이즈를 줄여서, 좀 덜 갖고, 좀 덜 누리면서도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무소유 같은 책도 보면서, 욕심 사납게 살지 말자고 다짐도 해봅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매력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나은 편이니 불평을 줄여야겠다고 다짐도 해봅니다. 그래도, 돈이 없고, 무력하고, 매력없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울해지는 것이 영 괴해지지를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도 해봅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심장에 쌓이는 화병은 낫지 않고, 괴로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공중파나 케이블 어디를 보아도 먹방이 인기 있는 것을 보니, 먹는 것으로 욕구불만을 풀어보려는 집단적 히스테리 현상이 엿보입니다.

돈, 권력, 매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 속을 매일 수시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이 늘상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이런 기도가 한국교회의 기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고 사신 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아니면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없다고 했을 때의 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기도이고, 주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소원을 품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상을 하면서 즐거워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소원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아주 부분적으로라도 현실이 되면,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돈, 권력, 매력에 대한 상상과 소원들이 지겨워집니까? 여러분의 심장에서 사랑이 뛰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소원하고, 날마다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 징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축이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도 큰 것을 느낍니다. 돈을 소원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천 원 짜리 하나만 주워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소원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만 보아도 즐거워합니다. 매력을 소원하는 사람은 작은 칭찬에도 즐거워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감지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며, 잠시 동안이라도 유쾌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제 안과진료를 해준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1억 개의 세포가 있고, 각각의 세포에는 빛에만 반응하는 옵신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1억 개씩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빛과 반응을 하면 그것을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뇌로 보내고는, 그 찌꺼기가 망막의 색소상피세포라는 일종의 암실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암실에서는 그것을 부수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꾸어 혈관을 통해 폐로 보냈다가 호흡기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피부호흡을 통해 배출되기도 하겠지요. 다행히도, 옵신이라는 단백질은 빛과 반응하여 소멸되고 나면, 다시 생산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한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선생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고 사신 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아니면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없다고 했을 때의 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기도이고, 주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의 기도입니다.



은 옴신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할 때에, 망막에서 옴신이 생산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눈이 거대한 공장 같았고, 거기서 날마다 옴신이 똑딱똑딱 생산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 미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매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상력과 감각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도 안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지만, 옴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그것의 존재를 몸으로 느낄 정도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도는 그것이 눈에도 안보이고 귀에도 안 들린다고 해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까지 만들어 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기도를 넘어서서 정신분열에 이른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부자인 것처럼 몸이 느끼게 만들어주면 펄펄 빙글고 펄펄 쓰겠지요? 그래서, 기도는 잘못하면, 정신분열에 이를 수도 있고, 몸이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잘못된 일을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서,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치지 않아서, 멸절한 사람도 정신분열에 이르거나 몸이 망가지게 만든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도, 아주 작은 존재도 감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몸의 감각이 아주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옴신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느꼈던 의사처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느낌을 매일 느끼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감각을 키우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가교회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땀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단 한 가지라도 무익하고 쓸모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더러운 영을 내쫓는 일이며,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몸으로 느끼고, 여러분의 몸이 새롭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주기도로 기도하고 살아서, 다 해처럼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형제로 맡겨주신 교우들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보입니까?

그 의사선생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우리 눈의 망막 중간 쪽에는 직경이 1밀리도 안되는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밀한 것을 보는 원뿔형의 세포인데, 600만개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포는 막대형의 세포인데, 큰 사물이나 명암을 구분하는 정도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반에 문제가 생기면 실명의 위험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옴신의 찌꺼기 처리가 잘 안되면 그 찌꺼기가 망막을 돌아다니면서 황반으로의 산소공급을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막 하층에 있는 혈관들이 황반에 산소를 공급하려고 임시 혈관들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망막을 뚫고 황반까지 연결하

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 혈관이다보니 워낙 약해서 잘 터집니다. 그게 막 터지면서 망막을 더럽히게 되고, 황반까지 뒤덮게 되면 좁쌀보다도 작은 황반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황반변성이고 실명의 제1원인입니다. 오늘날에는 혈관의 생성을 막는 주사제가 개발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1백만 원 정도 주고 맞는 주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황반변성이 오면 내가 보려고 하는 대상만 검게 안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농담이 섞인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말입니다. 내 눈에 그들이 아름답게 보이면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황반병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웃으며 나는 이야기지만, 참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 여러분은 성령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좋게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황반변성 같은 것입니다. 실명의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좋게 보이지 않으면,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매일 주기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병에서 나올 것이고, 형제를 좋아하고, 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을 묵상하는 대림절기입니다만, 주기도로 드리는 매일기도와 호흡기도에 집중하셔서, 이 땅의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희망인 교회를 세우고, 누립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뿌리 조민경: 초록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씨앗님과 사귀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사랑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생명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와 감사선물을 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독립군님에게 감사표현으로 밀반찬을 선물 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선물을 준비해서 독립군님을 만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선물을 준비해서 온유님을 만나겠습니다.

온유 유영미: 나무님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선물을 준비해서 늘빛님을 만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샘물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갖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선물을 준비해서 샤론님을 만나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불꽃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시원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유유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화음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운 양세련: 큰열매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신나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카라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희은님에게 이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마르다님에게 감사 메세지를 전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등대님에게 감사사를 전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즐거운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해님을 좋아하기 위해 내가 읽은 성경구절을 나누고, 이모티콘 선물을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아모님에게 안부의 인사와 성경구절을 보내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새롬님에게 반찬 선물을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마리아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새롬님을 위해 식사준비를 돕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새롬님에게 아침기도 후 감사문자를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가족들과 조끼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성찬 뒷풀이에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은석님과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일대일 만남 짝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에스더님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성실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바다님에게 감사선물과 음성 메세지를 전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좋은님에게 감사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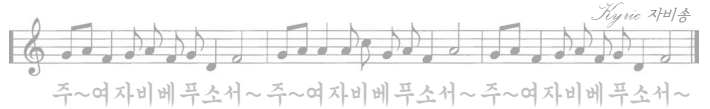
광야 김규동: 가족 한 명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한 해를 감사하며 좋은님과 즐거운 사귀을 갖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빌립님에게 감사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126편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합성으로 가득 찼다.
그 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가!
주님,
네 껍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첫 기도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 구원의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구원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

르게 하소서.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서 가르
치시고, 행하신 대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
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고난 받는 세상에
희망의 빛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1-2/ 3-4/ 1-2
3-4/ 5-1/ 2-3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
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교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
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
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
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



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126편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 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던가!
주님,
네 겹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
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 73 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35)

세상에는 법치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법치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시민사회의 수준도 높아야 하며, 시민사회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교육 뿐만 아니라 경제 적 수준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부의 재분 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수준 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 서구사회는 기독교의 영향 아래서 부자들의 재산기부를 전 통처럼 삼아왔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세계 부자 순위에서 1등을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은 410억 달러를 공익 재단에 기부해서 미국시민의 자존감을 높여 주었다고 평을 들은 바가 있다. 물론, 그는 그 일로 회사 이미지가 좋아져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2015년 11월에는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주커버그가 31세의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지분의 99퍼센트인 450억 달러(약52조)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여, 미국 부자들에게 기부경쟁의 불을 지폈다고 한다. 그들은 재벌들의 부의 재분배를 관습화함으로써, 법치 시스템과 시민사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부단히도 힘쓰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부가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법치나 시민사회의 수준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의 경우엔 재벌들의 기부가 탈세나 사회적 비난에 대한 면피 내지는 부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구사회와 비교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재벌 뿐 아니라 통치자들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절대다수가 자기들의 부나 권력을 분배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서구 선진국들과의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 하다못해, 서양처럼 자국의 부와 안녕만을 생각하는 애국적 지도자도 찾아볼 수 없는 처지이다.

사회진화론자들은 서구사회를 진화된 사회로 보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의 사회를 미개한 사회로 간주한다. 서구사회는 높은 시민의식과 훌륭한 법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그 밖의 사회들은 낮은 시민의식과 미개한 시스템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오래 전 제국의 경험을 통해, 약하고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많은 부를 갈취한 나라들이다. 사람들은 부자나라들을 부러워한다. 그들 대다수는 법치국가의 좋은 모델이며, 높은 시민의식과 복지를 누리고 있다. 고대 법가나 유가의 사람들이 이들 나라들을 목격했다면, 그들의 이상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사례라며 좋아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권력의 세제지도를 놓고 보면, 그들은 권력의 총애를 받는

나라들이며, 백성들이다.

법치는 통치자들이 바뀌어도, 인간사회가 권력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법치는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통치자들 역시 법치라는 시스템에 서는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백성들만큼 양보할 필요는 없다. 법치라고 해도 수혜의 정도로 본다면, 통치자들이 백성들 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치자들은 법을 잘 알고, 잘 다루는 노예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자기의 지분을 조금만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정재계에서 이름값 한다는 법조인들을 앞다투어 고액의 연봉으로 영입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법을 잘 모르고, 다룰 줄 모르는 백성들은 통치자들이나 부자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법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백성들의 대다수는 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더욱 심한 정도로 백성들은 법을 모른다. 법전을 읽어 본 사람도 거의 없는 수준이니 말이다. 통치자들은 법치를 표방하며,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런데,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정작 법에 대해 무지하다. 게다가 법전을 쥐어주어도 소용이 없다. 읽어도 모를 표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법이라는 것



자기의 인생과 목숨까지도 내맡기고 있으니 말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 아마도, 할라카라는 이름으로 복잡할대로 복잡해진 율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지도자들 정도였을 것이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서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도록 지도 받는다. 성경을 읽는 열정으로 치면, 개신교도 밀리지는 않는다. 한국 교회의 경우엔,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것도 유행처럼 퍼져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외우고, 쓰기까지 하니, 성경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뜻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독서백편이면 의자현’이란 말이 있다. 책을 100번 정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인데, 성경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성경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읽을 수 있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자기 몸으로 실천해야 읽혀지는 책이다. 단순히, 글공부의 방식으로는 성경이 독해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선생 없이도 성경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읽으려면 스스로가 선생의 수준이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유대교에는 랍비가 있고, 개신교에는 목사가 있지만, 랍비나 목사의 위치에 있는 이들 중에도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성경이 특별히 어려운 책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독해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 성경은 마치 음식을 조리하는 요리지도서 같은 책이다. 내가 직접 실천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깨달아 나가는

책이다.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책이 아니라, 나의 몸이 깨달아야 하는 책이며,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새롭게 되는 만큼 읽혀지는 책이다.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법만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힘써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면,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를 누리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간단한 독해 방법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누군가 고의로 사람이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 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율법교사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문제 삼았다.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꾼들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마23:13)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눅11:52)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내리누르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억압과 착취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키는 자들이라 불렀다.(마23:15, 막12:40, 눅20:47)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요한복음 8장은 공관복음서를 인용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맥락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악용하는 현장을 고발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의 시작부터 예수님과 율법학자 및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율법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살 수 있고, 안 지키면 죽어야 한다는 해석을 갖고 있다. 즉, 그들에게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라기 보다는,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름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복숭아 중에 ‘천도복숭아’라는 것이 있다. 천도복숭아는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만 자라는 복숭아이며,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열매이다. 한무제 때에 동방석이라는 사람이 한무제에게 바쳐진 30개의 천도복숭아 중 3개를 훔쳐먹고 3천갑자를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천상계에 갔다가 천도복숭아를 훔쳐먹고 불로불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천도복숭아에 얽힌 전설처럼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영생하고 싶은 사람은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상한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다.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살려주고, 먹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도복숭아를 먹고 옥황상제만이 누릴 수 있는 불로불사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일은,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말할 수 없



이 좋은 일이고, 비교할 것 없이 기쁜 일인데, 그것이 갑자기 의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즉, 하늘의 생명을 누리야만 하고, 누리지 않을 것이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일은 자식에게 좋은 일이다. 자식은 부모가 만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규칙이 하나만 들어진다. 밥을 먹으면 살려주고, 밥을 먹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죽는 게 두려워서 밥을 먹어야 한다. 아이가 밥을 먹는 이유는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죽지 않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밥을 먹는 일이 기쁜 일이 되겠는가? 행복한 일이 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단지 생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생명이라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통용될 수 있다. 삶이 전쟁이고, 괴로움이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먹이는 밥을 먹으면서 죽지 못해서 산다는 심정으로 먹는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좋게 여기겠는가?

예수님이 보기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야만 살고, 받지 않으면 죽여야 한다는 법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꼴이 된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차려주었는데, 자식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달래볼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꾸짖

을 수도 있다. 부모가 자식을 달래고 꾸짖는 까닭은, 자식이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자식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여 버린다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먹인 목적이 무엇이 되겠는가? 자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 목적으로 밥을 이용한 것 밖에 더 되겠는가? 세상에 악한 부모들도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해석과 적용은 하나님을 세상의 악한 부모들보다도 더 악한 존재로 여기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면,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기꺼이 얻으려고 하겠는가? 두려움 때문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얼마 전에 목사 부부가 세 명의 자식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훈육한다면서, 지도한 대로 살면 상을 주고, 지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호된 매와 밥을 주지 않는 벌로 다스렸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매일 지속되는 훈육과 매를 견디지 못해, 영양실조와 온 몸의 상처로 서서히 말라 죽어간 것이다. 그 부모들은 싸늘하게 식은 자식들의 시신을 놓고, 부활시켜야 한다면서 기도집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바꾸어 먹은 사례들 중에 사소한 하나일 뿐이다.

지난 2천 년간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교도들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기도 세상의 정점에 서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와 권력을 누

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축복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난 2천 년간 허다하게 일어났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악마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라고 대답할 지도 모른다. 2천 년 전,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같은 대답을 한 일이 있다.

“[40]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4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43]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요8:40-44)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은 ‘네 이웃(형제)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는 태생이 다른 존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데, 그 태생은 '살인자'라는 것이다. 예수님에 따르면, 악마의 자식들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인하는 존재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웃(형제)을 돌로 쳐서 죽이는 법으로 이용하였다. 그들은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인의 법으로 써먹은 것이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식도 아닌 것이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할라카를 가지고 동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데 써먹었다. 기독교는 단 하나의 법만 가지고 산다. 그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그러나, 이 법이 사랑하면 살려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쓰이게 된다면, 그 법이 1개 뿐인 것과 613개인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둘 다 사랑의 법이 아니라 살인의 법일 뿐이니 말이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잊고 사는 것 같다. 복잡한 교리 문답들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교리를 대신하고 있다.

기독교는 2세기 이후 교부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리논쟁을 하다가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며 지난 2천 년 가까운 세월을 분열의 세월로 지냈다. 물론, 교리 논쟁에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아예 다루어진 적도 없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와 같은 문제도 아닌 문제로 싸웠고, 이 싸움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예수님의 존재를 두고 일어난 교리논쟁은 예수님과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있는 이들로

서는 있을 수 없는 논쟁이다. 교부들의 시대 이후 교회가 누렸던 자존감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말인가? 교회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누리고 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교회가 사분오열될 수 있었던 말인가?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악마의 아들이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 똑같은 율법을 받았는데, 한 쪽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한 쪽은 악마의 아들로 드러난 것이다. 8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악마의 아들은 살인하는 존재이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증언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또한 교회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들로 이해했다. 이 점에서 예수님과 교회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이고, 사랑만이 유일한 진리인 길을 함께 가는 친구(동지)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사귄 가운데서 하나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입장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누렸던 자존감은 사라져갔으며, 급기야는 예수님의 존재문제로 서로 다투는 지경까지 간 것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때에, 교회는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교회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기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했단 말인가? 중세 이후로 교회는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갈라놓는데 주력했다. 예수님이 교리에 의해 특화되면 될수록, 교회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멀어졌다. 오늘날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인들이 어떤 자존감을 살고 있는가를 보라.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것도 거의 내세로 넘어간 구원인 천국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죄인'이 아니던가? 그러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상할 일이 없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도 정당화되지 않았던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 보다는 죄인의 길이 더 가깝다. 전설에 의하면 콘스탄틴 황제는 세례를 받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 때문에, 세례를 미루다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성 어거스틴도 세례를 한참 미루었다가 받았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기피했던 것이 과연 예수님과 바울이 누렸던 믿음과 같게 보이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일은, 구약에는 거의 없고, 신약에는 아주 많다. '아버지'는 '사랑'을 비롯하여, '죄', '은총', '생명', '죽음', '부활', '복', '저주', '의', '평화', '용서', '심판' 등 예수님과 바울이 전할 수 많은 개념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아버지'를 모르면, '아들'도 모르고, '아들'을 모르면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드림가족

은석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새롭님 병원에 찾아가서 일대일 만남을 했다, 병원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의 새롭님을 보며 무슨 일이든 마음 먹기에 따라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기도와 호흡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좋았다, 서로 카톡을 통해 격려하며 사귀고, 서로를 아껴주는 가족들의 모습에 감사하게 되고 그 모습이 좋아서 따라하게 되었다, 교역자 섬김을 준비하면서 해태감독으로 잘 살아가서 좋았고 징글벨 연습과 송년회를 같이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쁘게 연습하고 준비했다, 가족으로 함께 사는 시간이 더욱 편해졌다, 에스더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대기명당 서포터즈로 수고해 준 감사를 문자로 보내며 사귀는 가졌다, 에스더님에게 선물할 디퓨저를 고르며 즐거웠다, 에스더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서 선물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에스더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실내화와 예쁜 욕실용품을 선물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커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

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의 의미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살지 않고 죽어서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본문의 내용처럼 좀비 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 같다, 지금을 잘 살아야 나중에 육체든 아니든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맑은가족

나무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늘빛님을 좋아하기 위해 마사지를 해 드릴 계획을 세웠다,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무릎이 덜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 받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성탄절 음식으로 내려고 미리 백김치와 김치를 만들면서 늘빛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늘빛님을 격려하고 반찬과 대추선물을 하였다, 늘빛님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며 호흡기도와 아침기도에 집중하며 문안인사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바울은 주님께

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변화한다고 말한다, 바울의 부활신앙은 철저히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 교리 등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부활개념은 자신의 욕망인 돈과 권력의 영원한 소유와 향유에 목적을 두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유혹도 받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 최고의 삶을 알고 살아가겠다, 바다님 생일 케이크를 사겠다, 새롭님에게 선물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하음가족

불꽃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시원님을 위해 직접 닭근 열무김치를 선물하면서 시원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다, 큰열매님과 카톡으로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유유님이 소식지에 쓴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하여 가족 카톡 방에서 애정의 인사를 나누었다, 한가은님이 부엌에서 즐겁게 요리할 모습을 떠올리며 냄비 집계를 선물하였다, 항상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불꽃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회용 다시주머니를 선물했다, 아이디

어 부엌소품들을 고르면서 푸른님의 밝은 미소가 떠올라 덩달아 유쾌해졌다, 신나님과 아이들이 함께 입을 수 있도록 편안한 겨울 옷을 선물했다, 화음님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빠지지 않는 모습에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부활이 내 삶에 의미가 있도록 살겠다, 바울이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인상 깊다, 사랑하는 삶을 통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 부활에 대한 천국 내세 교리는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 나의 욕심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습관을 버리고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찾아야겠다, 좋은님에게 점심대접을 하겠다, 새롭님을 격려하겠다, 에스더님에게 이사선물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포도가족

새롭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마리아님을 좋아하기 위해, 내가 읽은 성경구절로 인사하고, 이모티콘 선물을 했다, 마리아님이 오늘을 ‘사랑하는 삶’으로 채

우길 희망하며 기뻐다, 출장을 가는 보라님에게 인사와 성결구절을 전달했다, 보라님에게 선물을 하기를 계획하고 보라님이 좋아하는 사과를 준비했다, 보라님과 만나 좋아하는 표현을 하니 더 친해진 느낌이 들어 좋았다, 새롬님을 좋아해서 생강 대추차를 만들어 선물했다, 만드는 동안 새롬님이 차를 마시고 건강해질 것을 생각하며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부활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신앙이다, 부활이 나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부활의 삶은 서로가 같이 사는 이 땅에서부터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사랑하는 쪽으로 더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은님에게 감사문자와 선물을 하겠다, 신발정리를 하겠다, 화음님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하겠다, 독립군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 시원님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다, 식탁가족을 대접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사랑가족

사랑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점심시간을 내어 찾아와 준 한가온님과 점심식사를 하고 선

물을 나누며 행복했다, 초록님 병문안을 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전했다, 자녀양육 회원들이 만드는 김장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새로 가족이 된 고래님을 만나 사귀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고래님의 집을 방문하였다, 반갑게 맞이하는 고래님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일대일 만남이나 워크 북 쓰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다시 한 가족으로 살게 된 고래님을 보며 참 반갑고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부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는데, 물리적인 부활의 형태가 무엇이든 기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활이라는 것은 새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일,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의 부활만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고, 죽고, 부활하는 삶이 최고의 삶을 배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성실가족

광야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성실님을 좋아해서 한 주간 성실님의 밝고 환한 모습을 그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겨울에 직장에서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복을 선물할 예정이다,

빌립님을 좋아해서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쇠고기로 푹 끓인 미역국을 선물했다, 빌립님을 생각하니 더욱 감사하고 좋다, 찬미님을 좋아해서 회사로 찾아가 저녁을 대접하고 차를 마시며 믿음의 삶과 양육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었다, 성찬대접으로, 사귀고 여가 행사로, 사랑의 실천으로 3일 연속으로 만나면서도 또 반갑고 좋았다, 찬미님을 좋아해서 따뜻한 장갑을 선물할 예정이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바울은 자신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같은 삶을 살겠다, 돈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좀비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바울이 믿는 부활을 나도 믿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소원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섬기며 살겠다, 교우들을 좋아하고 잘 하는 삶을 살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소식가족

카라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마르다님을 좋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며 마르다님의 좋아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마르다님을 위해 조그만 일이라도 하는 것이 무척 기뻐다, 유랑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대접을 계획하였다, 선물을 준비하면서 유랑님을 더 좋아할 수 있었다, 카라

님을 좋아해서 데살로니가전서와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며 카라님을 생각했다, 즐거운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생선포 과자를 주문해서 주일에 전했다, 즐거운님이 더 좋아졌다, 마르다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실내화를 선물했다, 따뜻한 실내화를 신고 다닐 마르다님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바울의 부활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은 '함께'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다, 내가 교우들과 함께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듯이 부활도 개인의 차원을 뛰어 넘어, 내 이웃들과 더불어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부활을 소망하며 살길 기대한다,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고 누린 부활에 집중하여 살겠다, 도원이와 사귀를 갖고 선물하겠다, 초록, 새롬, 씨앗님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겠다, 해님에게 성탄카드를 감사를 표현하겠다, 다친 새롬님에게 문자를 하겠다, 진주님에게 선물하겠다, 식탁가족 새롬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웃고 즐기고 사귀자

드림가족 미리내 황호영



2015년 드림가족은 ‘웃고, 즐기고, 사귀자!’를 목표로 ‘게스트 하우스’라는 스토리와 가족들이 각 방의 방장을 맡아서 구체적인 사랑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살았다.

나는 ‘해태감독’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가족모임을 시작할 때 유머를 준비하여 가족들을 즐겁게 하고, 또 큰 소리로 10초 동안 웃으며 가족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1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어서 기뻐다.

또 3주기 여행방장을 맡으면서, 부산, 거제도의 여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군 후배들과도 드림가족 여행을 통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가족들의 숙소를 준비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여행을 통해서, 어울님과 한 방에

서 같이 생활하면서 더 많은 정을 느끼고 사귀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5주기 이벤트 방에서는 가족과 함께 먹는 기쁨을 나누며, 오리백숙, 바다장어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좋은 것이 생기면 가족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라 꼭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을 누렸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봄에는 교회 텃밭 가꾸는 일, 가을에는 화분에 국화 심기,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장식 등으로 사귀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 그 결과,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올 한 해 스토리를 따라 계획한 대로 즐겁게 살아서 참 좋다.

또한 성가대로 활동한 것도 나에게 참

좋았다. 악보를 보지 못하고 가끔 엉뚱한 소리를 내지만, 그래도 늘 격려하며 즐겁게 함께 한 성가대에게도 감사 드린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날 때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약속을 잘 지키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여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았다.

2015년은 드림가족과 함께 하면서 우리 가족의 좋은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어서 참 좋은 한 해였다.

크리스마스 선물 명단

학생부 (남)

양동엽, 홍진표(고3)
류지호, 이정우, 양동우(고1)
김원식(중3)
류재현, 김선우(중2)
이정안(중1)

학생부 (여)

이지원(고1)
김정인(중3), 양진아(중1)

초등부 (남)

이도원, 서준서(초6)
정찬희(초5)
장필, 최하루(초4), 서태운(초3)
박민혁, 정근희, 정호현(초2)

초등부 (여)

김정민(초6)
김연우, 정규현(초4)
장연(초2)

미취학 (남)

박민건, 안현수(7세)
정준현, 최미루(6세)
안현우(5세), 안현설(2세)

미취학 (여)

김소율(6세)
장산(5세)
김하율(3세)



자녀양육모임

지난 12월 5일에 자녀양육모임에서 김장을 담갔습니다. 올해로 벌써 8번째입니다. 이제는 김장 담그는 것이 아주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김장 담그기를 글과 사진으로 엮었습니다.

양육모임에세 김장을 담는 것은 2008년 겨울부터 시작했다. 그때 이후로 매년 김장을 담가 왔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실력이 늘어서 올해 김장은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양육모임의 김장 준비는 일단 김장 대장을 뽑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올해 김장 대장은 새롭님이 맡았는데 새롭님이 대장을 맡을 때부터 올해 김장은 이미 성공한 것 같은 분위기였다.

김장 대장이 정해지면 김장 대장은 김장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제안서는 김장재료 분량, 김장 담그는 일정, 각자 역할과 비용 등에 대해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작성되어 제안서만 보고도 누구나 김장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제출된 제안서는 정기모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고 제안서대로 김장 담그기가 진행된다.

올해 김장에도 예전처럼 양육모임 회원이 아닌 교우분들이 도와주셨다. 맑은님과 창윤이가 야채다듬기를 도와주셨고 진주님과 에스더님은 매년 김치 속 넣는데 도와주셨으며 해님은 절임배추 10kg짜리 상자 20박스를 혼자서 1층에서 3층으로 날라주셨다. 그리고 빌립님이 바비큐를 구워주셔서 막 담근 김장 김치로 보쌈을 먹으며 흥겨운 잔치를 즐길 수 있었다.

한 가족으로 사는 즐거움을 맞본 올해 김장 담그기였다.





예가 소식 & 공지

1. 지금은 대림절기입니다. 이 땅의 고난을 묵상하는 대림절기 동안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형제에게 잘하고, 좋아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로 지냅니다.

2. 주일 연경반 강의는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3. STS(Searching The Scriptures) 하반기 강의는 산상수훈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료실에 모두 업로드되어 있으니,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목요기도회는 목요일 밤 9시 30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목요기도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목요일 밤에는 소식지를 펼쳐놓고, 교회의 활동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5. 2015년 크리스마스는 한 해 동안 사귀어 가진 이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갖습니다. 칸타타예배는 가족모임과 부서별 발표회로 대체하여 갖습니다. 이 날 발표를 위한 준비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부터 만찬과 부서별 발표로 갖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며, 파티 후에는 선물나누기, 그리고 0시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6. 호흡기도를 매일 합시다. 호흡기도는 주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호흡기도에 힘써서 예수님이 누리신 자존감을 가지고, 통크고 당당하고 밝은 삶,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습니다.

7.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드림, 에스더님입니다. 예배위원은 한 주간 동안 형제를 좋아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드림가족이 대접합니다. 12월 봉헌위원은 늘빛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고린도후서 10장 ~ 갈라디아서 3장
화	갈라디아서 4장 ~ 에베소서 6장
수	빌립보서 1장 ~ 골로새서 2장
목	골로새서 3장 ~ 데살로니가후서 3장
금	디모데전서 1장 ~ 디모데후서 4장
토	디도서 1장 ~ 히브리서 6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